



우루과이 '디에고 포롤란'

“내일은 없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죽음의 조'로 꼽히는 D조에서 나란히 패배한 우루과이와 잉글랜드가 배수의 진을 치고 맞대결을 펼친다. 우루과이와 잉글랜드는 20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맞붙는다. 이미 1패씩 떠안고 있기에 이 경기에서 지는 팀은 16강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C조에서는 1차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따낸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가 1위 경쟁에 나선다. 양팀이 승점 3으로 동률을 이룬 가운데 골 득실에서 콜롬비아가 +3을 기록, 코트디부아르(+1)보다 앞선 상황이다. C조 3, 4위를 처진 일본과 그리스도 분위기 전환을 위한 1승이 필요한 처지다.

지면 탈락...우루과이-잉글랜드, 일본-그리스 벼랑 끝 승부

우루과이, 수아레스 복귀 여부 관전...日, 가가와 활약 주목

◇콜롬비아-코트디부아르(1시·마네 가한사 국립 주경기장) = 이기는 팀은 16강 진출에 바짝 다가선다.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가 모두 1차전에서 승리한 가운데 이날 펼쳐지는 같은 조 그리스와 일본이 무승부를 거두면 이기는 팀은 16강 진출을 확정한다.

콜롬비아는 1차전에서 그리스를 3-0으로 제압, 자국의 월드컵 본선 사상 최다 점수 차 승리를 거둬 분위기가 좋다. 라다멜 팔카오(모나코)가 불운의 부상자로 월드컵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메스 로드리게스(모나코), 후안 콰드라도(피오렌티나) 등이 공격에서 믿음직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도 일본과의 1차전에서 승리하며 사상 첫 16강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다.

코트디부아르는 디디에 드로그바(갈라타사라이)의 관록에 또 한 번 기대를 건다. 올해로 36살인 드로그바는 일본전에서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돼 경기 흐름을 일거에 바꾸는 역할을 했다. 이번에도 후반전 분위기 반전용 카드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루과이-잉글랜드(4시·코린치앙스 경기장) = 배수의 진을 친 두 팀의 대결이다. 우루과이는 1차전에서 비교적 약체로 꼽히는 코스타리카에 1-3으로 졌다. 잉글랜드는 이탈리아에 1-2로 무릎 꿇었다. 우루과이로서 루이스 수아레스(리버풀)가 복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13-2014시즌 잉글

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수아레스는 지난달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못해 개막전에 나오지 못했다. 수아레스는 우루과이 언론에 “몸 상태는 100%”라고 자부하며 출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잉글랜드는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활에 기대를 걸어본다. 루니는 이탈리아와의 1차전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됐지만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루니로서도 조국의 16강 진출 디딤돌을 마련하는 동시에 월드컵 본선에서 이어지던 부진을 털어낼 기회로 버리고 있을 터다. 루니는 2006년 독일 대회, 2010년 남아공 대회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에 나섰다. 아직 월드컵 본선에서 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일본-그리스(7시·두나스 경기장) = 일본과 그리스 모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다. 일본은 가가와 신지(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부진을 씻길 고대하고 있다. 가가와와 1차전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섰다. 슈팅 기회를 잡지 못하는 등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 우승 팀인 그리스는 예선 10경기에서 4골밖에 내주지 않는 단단한 수비력을 보였지만 1차전에서 3골을 내주면서 체면을 구겼다. 그리스는 코스타스 미트로글루(폴럼), 이오아니스 페트파지디스(제노아)가 골 점목을 깨뜨려줄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루니'

월드컵 이모저모

獨 포돌스키, 메르켈 총리와 '인증샷'

북한, 브라질 월드컵 기념우표 발행



포돌스키와 메르켈 총리

○...2014 브라질월드컵 첫 경기에서 포르투갈에 4-0 완승을 한 독일 대표팀의 공격수 루카스 포돌스키(아스날)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어깨를 두른 모습의 '셀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포돌스키는 독일 언론에 “메르켈 총리를 만났다는 것은 큰 기쁨이다. 그녀는 결승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총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은 메르켈 총리가 독일팀의 탈의실로 찾아가 첫 승리를 축하한 뒤 찍은 것이다. 이 사진과 별도로 슈테판 자이베르트 총리 대변인은 메르켈이 대표팀 전체와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북한이 2014 브라질 월드컵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내각 산하 국가우표발행국 국제우표발행위원회(IOC) 창립 120주년 기념우표와 함께 브라질월드컵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소개했다.

브라질 월드컵 기념우표는 소형전지 1종과 개별우표 3종으로 나왔다. 개별우표는 축구선수가 드리블과 태클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소형전지에는 슛을 하는 선수와 축구공, 월드컵 그림이 있다고 중앙통신이 설명했다. 북한은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연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주요 경기를 녹화 중계하는 등 세계적인 축제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베주(州)의 주도 다마투루에서 17일 오후 8시(현지시간)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브라질 월드컵 경기중계방송을 시청하던 주민 수 명이 숨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중상자가 15명이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이날 브라질과 멕시코 경기가 시작된 직후 자살폭탄 테러범이 삼륜 택시를 몰고 중계방송을 보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있던 TV 관람센터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은 월드컵 대회 개막을 앞두고 최근 수 주동안 나이지리아내 TV 관람센터와 스포츠바를 공격 표적으로 삼았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2차례 폭탄공격으로 최소한 40명을 살해했다.

나이지리아 군은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으나 250명이 넘는 여학생들을 집단 납치한 보코하람의 잇따른 테러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제리, 생각보다 강했다

벨기에, 압박수비 막혀 2-1 진담승

브라질, 멕시코 오초아 선방에 0-0

18일(한국시간) 브라질 포르탈레자의 에스타디오 카스텔라오 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기는 우승후보 브라질이 상대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무승부로 끝났다. 이 경기는 멕시코 수문장 기예르모 오초아의 선방이 단연 돋보이는 경기였다.

우승후보 브라질은 90분간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과 함께 공격을 펼쳤지만 멕시코를 꺾지 못했다. 멕시코는 브라질을 상대로 승점 1점을 추가해 1승(무(승점 4점))로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브라질은 화려한 개인기와 스피드를 앞세워 멕시코에 공

세를 퍼부었지만 번번이 오초아의 손끝에 걸려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날 경기에서 멕시코 골키퍼 오초아의 활약은 눈부셨다. 오초아는 전반 26분 브라질 네이마르의 결정적인 헤딩 슈팅을 막아내며 선방했다. 또한 전반 44분 파울리뉴의 슈팅과 후반 24분 네이마르의 왼발 슛도 쳐냈다. 후반 40분에는 실바가 헤딩슛 한 공을 정확히 걷어내기도 했다. 이날 오초아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H조 최강”으로 손꼽히는 벨기에에는 알제리에 힘겨운 역전승을 거뒀다. 벨기에에는 18일(한국시간)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

리그 H조 1차전에서 알제리에 2-1 역전승을 기록했다. 벨기에에는 전반 내내 득점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전반 25분 알제리의 소피안 페굴리에가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전을 무기력하게 끌려가던 벨기에에는 마루안 펠라이니를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펠라이니는 케빈 더브라우너의 크로스를 헤딩골로 성공시키며 후반 25분 동점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또한 후반 35분에 역시 교체 투입된 드리스 메르티스가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연결시키며 역전골을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에이스는 괴로워”

17일(현지시간) 브라질 포르탈레자 카스텔라오 아레나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A조 2차전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멕시코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